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September 21, 2017 Vol. 594

기공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첫 삽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은퇴 선교사 위한 선교관 건립

내년 8월 완공 후 입주 예정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은퇴 선교사를 위한 선교관을 건립한다.

은혜한인교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브루스 위테이커 풀러튼 시장, 제니퍼 피츠제랄드 시의원, 이호우 OC교협 회장 등 2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예배를 드렸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선교지에서 20, 30년을 헌신한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교회에서 은퇴 선교사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교관 건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또 "은혜한인교회가 파송한 59개국 308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은퇴한 후 노인 아파트 등 거주지가 마련될 때까지 3년 동안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말씀을 전한 김광신 원로목사는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뿌리는 선교사를 위해 은퇴 선교관을 건립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기도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위원장인 권혁성 장로는 "선교관은 내년 8월 완공해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층은 단기방문 선교사를 위해, 2층은 은퇴 선교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관은 은혜한인교회 본당 건물 건너편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 3,000천 스퀘어피트의 건물로 1층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팅룸, 9유닛의 스튜디오(호텔룸 타입), 2층은 7유닛의 원베드룸으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날 기공예배는 강순영 목사의 대표기도(JAMA 대표), 한기홍 목사의 환영사, 김광신 목사의 설교, 브루스 위테이커 시장과 이호우 목사의 축사, 권혁성 장로의 건축 일정 설명, 합심기도, 김태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 열린다

PCUSA 남가주-하와이 대회 내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KPC가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21일(목)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오후 2시부터는 조셉 스몰 교수(전 PCUSA 신학예배 디렉터)가 "교회의 위대한 목적들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오후 7시 30분부터는 김창환 박사(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원장)가 "개혁 신앙 중심의 공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이번 행사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모든 남가주 지역 한인들에게 개방된 행사다.

문의) 310-618-2222

교회 주소) 188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앞줄 왼쪽부터) 김성신 부총회장, 정영수 총회장, 김경희 서기, 김나니 OC노회장 (뒷줄) 전인철 총무, 권태근 회계

삼위일체장로교회 총회 열려

총회장에 정영수 목사 연임

삼위일체장로교회 국제연합총회가 제12차 정기총회를 19일 오전 11시 세상을향한비전교회(김경희 목사)에서 개최했다.

임원선출 결과 총회장 정영수 목사가 연임됐으며 부총회장 김성신 목사, 서기 김경희 목사, 총무 전인철 목사, 회계 권태근 장로가 선출되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성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권태근 장로가 기도하고 정영수 목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 5:16-18)"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예배 후 곧 이어진 총회는 전인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회원 점명 후, 서기 및 회계 보고, 안건 및 토의, 임원선출, 신구임원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광명 선교사 하나님 품으로

한국 최초의 해외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의 아내 최광명 선교사가 9월 16일 오전 7시 1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8세.

故 최(김)광명 선교사는 독립운동가이며 순교자인 김예진 목사의 셋째 딸로 장기려 박사와 함께 부산 복음병원에서 일한 의사 출신이다. 1954년 최찬영 선교사와 결혼했고 1956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해외선교사로서 태국에 파송받았다.

입관예배는 22일(금) 오후 6시 또 감사선교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천국 환송예배는 23일(토) 오후 5시 포레스트론에서 있을 예정이다. 하관예배는 오후 6시다. 모든 예배는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가 집례한다.

故 최광명 선교사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Oxford Ave / Serrano Ave / Pico Blvd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10K Service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할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미국서남지방회 지방회장 취임예배

지방회장 취임예배
■ 일시 : 2017년 9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남가주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
■ 주소 :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 주관 :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
■ 문의 : 엄인애 목사(714-336-1762)

지방회장 오병익 목사 (남가주벧엘교회)
부지방회장(목사)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부지방회장(장로) 김규진 장로 (남가주벧엘교회)
서기 강양규 목사 (남가주새언약교회)
회계 최낙현 목사 (평화교회)
부서기 신익현 목사 (주심성결교회)
부회계 양흥규 목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 (213)434-1083

북미의 명설교가 5명과 그들의 설교 비밀

빌 하이벨스, 더윈 그레이, 캐리 뉴호프, 앤디 스탠리, 웨인 코데이로

(왼쪽부터) 빌 하이벨스, 더윈 그레이, 캐리 뉴호프, 앤디 스탠리, 웨인 코데이로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은 '미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 하는 5명의 목회자의 설교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아래 정리했다. 당신이 교회 담임목사라면, 매주 설교를 완벽하게 하기 원할 것이고 전문가의 설교 비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수년간 일해 온 사람들,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빌 하이벨스 목사는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창립자이자 수석 목사로 이 교회에는 2만 5천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그는 '설교를 향상시키는 6가지 확실한 방법'에서 설교를 위한 몇 가지 요령을 제시한다.

1.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을 들어라.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2~3명의 커뮤니케이터가 있다. 그들의 설교를 대충 듣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처럼 들어라.

2. 긴급성의 역동성을 이해하라.

설교가 바르게 행해지면, 일주일 동안 텍스트 또는 특정 주제를 기억하며 생활하게 되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 스며든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한다. 따라서 설교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주제가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긴급한 항목이 되게 하라. 당신이 제대로 준비했다면, 그러한 긴급성이 설교에 묻어난다. 그것은 매력적인 의사 소통이 된다.

3. 명확성을 위해 노력하라.

교사들을 코칭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나?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준비가 안 됐다. 교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지 마라"고 말한다.

4. 설교를 평가하라.

지난 25년 동안 커뮤니케이터로 일해왔는데 대부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것을 평가할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 당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어 그의 권능과 능력이 설교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윈 그레이(Derwin Gray)

더윈 그레이 목사는 NFL의 전 프로 풋볼 선수이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트랜스포메이션 교회(Transformation Church)의 창립 및 인도 목사이다. "나는 춤으로 나의 설교를 준비한다(I Prepare My Sermons by Dancing)"라는 기사에서 그레이는 그의 6가지 설교에 대한 비밀을 드러낸다.

1.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라.

설교 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계시를 필요로 하며, 내 삶과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한다.

2.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과 꿈을 함께 꾸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도구 쯤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꿈과 그의 나라의 '현실성'을 말하지 않는다면, 설교는 한낱 도덕적 교훈으로 그치게 된다.

3. 성경의 내용과 문화의 맥락을 알아라.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알아야한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가와 같아야 하며 청중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속적 역사와 구속 사역을 그려야 한다.

4.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

해석학적, 그리스도 중심의 작업을 마친 후에 나는 세 가지 질문을 한다. 1)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합니까?(머리) 2) 예수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심장) 3)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행동)

5. 단순하게 유지하라.

하나의 큰 생각이나 주제에 설교를 집중하라. 설교가 끝나면 나는 "영혼의 문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집에 가져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큰 아이디어이다.

6. 여러분의 설교를 예배 행위로 삼으라.

마지막으로, 내 설교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변형적인 일에서 흘러 나오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의 설교가 그의 경이로운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 행위가 되길 기도한다.

캐리 뉴호프(Carey Nieuwhof)

토론토 근처의 코넥서스 커뮤니티 교회(Connexus Community Church)의 창립자인 캐리 뉴호프 목사는 자신의 글 '확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에서 자신의 설교 비밀을 밝힌다.

1. 당신의 설교를 외우지 말라. 그것을 이해하라.

말을 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더 긴 이야기 더욱 그렇다. 암기는 자칫 설교하는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설교를 죽이는 것이다. 대신 설교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도록 이해하라.

2. 미리 그 주에 할 설교를 적어본다.

두 달간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 나는 시리즈를 위해 개발된 대부분의 결론을 얻었고, 설교하기 2~3주 전에 대부분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핀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할 때까지 시리즈는 이미 오랜 친구처럼 느껴질 것이다.

3. 최소한 하나의 자기비하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라.

잠재적인 교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을 보여주라. 사람들은 강점에 감탄할 수 있지만 약점에는 공감한다.

4. 대화의 논리적 흐름에 주의하라.

대화는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하며 각 섹션은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5. 설교 도중 정상적인 에너지보다 두 배로 크게 말하라.

처음엔 기분이 이상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하다. 손에 마이크가 있을 때 정상적인 대화 톤으로 말하면 실제로는 지루한 소리가 난다. 에너지를 두 배로 하라.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앤디 스탠리 목사는 1995년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담임목사이다. 아웃리치 매거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앤디 스탠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대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1. 설교할 때 목표에 따라 설교에 접근하라.

당신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나는 왜 설교합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라. 스탠리는 목표 또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치, 원리 및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2. 더 많은 것을 가르치라.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라. 당신은 더 적은 것을 다루지만, 더 많이 말하라.

웨인 코데이로(Wayne Cordeiro)

웨인 코데이로 목사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New Hope Christian Fellowship)의 창립 목사로 주말에 1만 1천5백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그는 'The New Normal of Preaching'에서 5가지 비밀을 밝힌다.

1. 더 많은 단어 그림을 사용하라.

단어 그림은 청취자가 정신적으로 당신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2. 사람들이 당신과 상호작용하게 하라.

상호작용은 새로운 학습자에게 중요하다. 청중은 설교자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3.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개인 삽화를 사용하라.

좋은 교사는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상처'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4. 단순화 하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5. 신학적으로 설명할 시간을 가지라.

청중들은 호기심이 많고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TRINITY UNIVERSITY
2018년 트리니티대학교 학위과정 입학 안내

디플로마 과정 : 온라인 E-learning
▪ 크리스천 태솔 Christian TESOL
▪ 크리스천 통번역 Christi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학사 과정 : 온라인, 수업
▪ 신학사 Bachelor of Theology(B. Th.)
▪ 기독교교육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B. C. E.)

석사 과정 : 온라인, 수업
▪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M. Div.)
▪ 기독교교육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M. C. E.)
▪ 기독교상담학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M. C. C.)

박사 과정 : 온라인과 집중수업
▪ 목회학박사 Doctor of Ministry(D. Min)
▪ 문화교류학 신학박사
Doctor of Theology in Intercultural Studies (Th. D. in Ics)

http://utrinity.org 세계 모든 곳에서 온라인 E-Learning 수업 가능합니다.
*본교는 콩코디아국제대학교 재단 선교학교입니다.

학생 혜택
* 학 석사과정 해당 학위 소지자 편입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
* 학교간 협약으로 영국 주요 국립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University of Birmingham, Anglia Ruski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ampton, University of Bedfordshire 외 다수 대학교로 편입 가능함)
* 박사과정 : 집중수업도 하며, 문화교류학 신학박사에 편입하는 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위 취득후 전도사 목사 해당 선교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다.
* 장학금 혜택 : 전교생이 금년 등록금의 경우 80%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교수진 : 학력과 경력과 영력이 갖춰진 박사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원서 접수 : 2017년 10월 20일 (장학생은 선착순)
수업 시간 : 월,화,목 저녁 7-10시
입학상담 : 행정 학감 Dr. Grace E. Jeong
Tel : 1(213)219-0649,(213)268-9367 E-Mail : admin@utrinity.org
주소 : 2975 Wilshire Blvd., Suite 640-D., Los Angeles, CA 90010

TRINITY UNIVERSITY 총 장 김회창 박사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강균성이 찬양하고 있다.

재스민 박 양(앞줄 오른쪽)과 가족 및 친지들

강균성과 함께 하는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 주최로 밀알장학금 모금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균성과 함께 하는 밀알의 밤이 '고백(마16:16)'이란 주제 아래 ANC온누리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치며 각 지역 밀알선교단이 주최한 밀알의 밤 행사에 참여하고 남가주에 도착한 그는 피로한 기색도 없이 무대에 올랐다. 16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집회는 강균성의 인기를 반영하듯 적게 잡아도 1천5백명 이상의 청중이 자리를 메웠다.

강균성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날 집회에서도 장애인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간증에 복음을 담아 노래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실 거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 아마 그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이죠. 저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라면서 불신자 청중을 향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노을'이 부른 인기곡들과 가요, 팝송과 복음성가들을 부르며 노래와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혼, 다행이다, The Last Time, 붉은 노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품에,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아시네, 나는 주의 친구, 주께 가까이, 멈출 수 없네 등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또 이번 밀알의 밤에는 시각장애 찬양사역자 하경혜 씨와 밀알수어찬양단도 찬조출연해 장애를 뛰어넘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미주 밀알 이사장 김영길 목사는 "이번 밀알의 밤 주제인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길 원한다. 신실한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필연코 변화가 따라온다"면서 "이번 밀알의 밤에 우리를 고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밀알과 게스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남가주 밀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모임, 토요일 사랑의 교실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또 매년 밀알의 밤 행사를 통해 모금을 진행해 밀알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1년 이래 현재까지 209만 7천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우리 삶은 청지기에요

[인터뷰] 재스민 박 양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학과 동양학을 전공하고 이번 학기부터는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재스민 박 양을 만났다. 재스민 박 양이 대견한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다.

현재 기쁜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상철 집사와 박플로라 권사의 딸인 박 양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다. 주일에는 온 종일 교회 장애부서에서 섬기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교회 집사들과 함께 5살 때부터 12년이 넘도록 매 주일 홈리스 선교를 나갔다고 한다. 홈리스들이 무섭지는 않았냐고 묻자 "어릴 때부터 매주 만나온 사람들이라 삼촌과 이모, 이웃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박 양은 하버드대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과 동양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고 졸업 후 2년 동안 평화봉사단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머물게 되었다.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곳 사람들을 보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풍요로움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경험한 그는 "우리 삶은 청지기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라고 강조한다.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박 양은 4,800달러를 모금해 캄보디아의 한 학교에 화장실과 물탱크를 설치해 주기도 했다.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해서였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박 양의 미래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다. 쉘비 권 기자

트리니티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

콩코디아국제대학교 재단 산하 트리니티대학교(Trinity University, 총장 김회창 박사)가 학생을 모집한다.

학교 측은 초현대화 시대에 적합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자 신학, 영어 테솔, 통번역, 교육, 상담, 문화교류학 등 다양한 과정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디플로마 과정인 크리스천 테솔과 크리스천 통번역 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학사 과정은 신학사(B.Th.), 기독교교육학사(B.C.E.) 과정이 있다. 석사 과정은 목회학석사(M.Div.),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기독교상담학석사(M.C.C.) 과정이 있다. 박사 과정은 목회학박사(D.Min.), 문화교류학 신학박사(Th.D. in Ics)가 있다. 학위 과정들은 온라인과 직접 수업, 집중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학교는 학사, 석사 학위를 소지한 편입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학교간 협력으로 영국의 주요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특히 문화교류학 신학박사 과정 편입생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학비의 80%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을 기회가 열려 있다. 원서는 10월 20일 접수 받으며 문의는 213-219-0649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utrinity.org
주소) 2975 Wilshire Blvd. #640-D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 찬양 합창제 열린다

오는 10월 1일 오후 6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제36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가 열린다. 장소는 은혜한인교회.

주최측은 "교회 간의 교류나 연합이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각 교회의 찬양대가 경연이나 경쟁이 아닌 서로 은혜의 찬양과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은혜한인교회,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데스다대학 합창단, 남가주장로중창단, Heavenly Mission Chorale, 아리랑 합창단 등 8개 팀이 참여하며 배주은 학생과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1971년 설립돼 남가주 교회 음악인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해 왔으며 교회 음악인을 위한 세미나, 창작 성가의 밤, 남가주 찬양 합창제, 학생 찬양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해 오고 있다. 문의) 310-381-9835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4〉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상담하고 새신자 훈련을 할 때 필자는 교회관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오늘 기록하는 글은 필자가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선교적 교회관에 대한 견해이다.

"교회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다. 이 시대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일으키신다. 성령은 운동성이 강하다.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그 운동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킨다 할 수 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주님의 선포에 교회는 순종해야 한다."

필자는 목회와 선교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회를 잘하는 것은 성도들을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선교를 교회 사역의 한 파트처럼 여기며 구색만 갖추고 선교한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선교는 교회가 목숨을 바쳐 감당해야 할 지상 최고의 사명임을 명심하자.

물론 그 선교의 사명을 잘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국제환경도 살펴야 한다. 선교 동역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동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돕고 하나되어야 하는 선교전략도 필요하다. 그런 전문적 선교 전략을 갖고 있는 전문 선교단체와 우리 지교회들은 영적 선교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명 앞에서 건강한 교회와 선교단체가 신뢰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비젼교회의 새교우 환영 모임을 마친 후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크리스천

제24차 JHM 영성 컨퍼런스 준비 중인 여캘빈 목사

여캘빈 목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파워 크리스천으로의 회복"이란 주제 아래 제24차 JHM(Jesus Healing Ministry) 영성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여캘빈 목사를 만났다.

여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이면서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영성 집회를 인도하며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여 목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1999년 목사로 안수받고 '잘 나진 못했지만 평범한 목사는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독대하게 되면서 '내가 병들었구나'란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 체험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 '성경에 대한 시각 변화'라고 말했다. 흔히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말씀과 상관 없는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데 여 목사에게 영적 체험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전에도 '성경이 전부'란 믿음이 있었지만 '체험'을 하고 나자 성경의 무오성이 더욱 확실해지고 '정말 성경이 전부'란 확신이 생겼다. 전에는 성경이 지식이었다면 이젠 체험이 된 것이다.

그는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영성 컨퍼런스를 벌써 23회째 열었다. 이번 24차 컨퍼런스는 오는 10월 2일(월) 오후 4시부터 5일(목) 오후 4시까지 3일간 빅베어의 파인 크레스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다.

여 목사는 육체적 질병과 중독 상태에 있거나, 삶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집회를 권하고 있다.

오전에는 말씀 강해를 하고 저녁에는 신유와 축사, 방언 등 은사 집회가 이뤄진다. 지난 23번의 집회 가운데 여러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건강, 사업 등 삶의 문제를 해결 받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이 많았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등록비는 300달러이다. 숙식은 물론 빅베어까지 가는 차편도 제공된다. 문의) 213-806-9990

한인가정상담소에 '사랑의 온수 매트' 기증

경동나비엔, 위탁가정 어린이들 위해 5대 전달

경동나비엔이 한인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온수 매트를 전달했다.

글로벌 난방 문화를 선도하는 경동나비엔(미주법인장 이상규)이 13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를 방문, 1대 당 500달러 상당의 온수 매트 5대를 기증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번에 기증받은 온수 매트를 갈 곳이 없는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위탁가정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5대 중 4대는 현재 위탁아동들이 머물고 있는 위탁가정에 전달,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다가올 겨울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나머지 1대는 21일 오후 6시 열리는 제34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에서 옥션 상품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위해 쓸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이 한인가정상담소에 온수 매트를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말에도 온수 매트 5대를 기증, 심신이 지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가정에 따뜻한 사랑을 전한 바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안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로 한인과 아시안 위탁가정을 교육, 관리하는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35곳의 한인 위탁가정이 총 42회에 걸쳐 위탁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이중 12명은 친부모와 헤어졌으나 한인 위탁가정에 입양되어 새 가족을 얻었다.

주안에교회 · 최혁 목사 명예훼손 승소

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가 한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3일 배심원 평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매체에 주안에교회와 최혁 목사에 대한 기사 12건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97만 5001달러를 배상하고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들은 최 목사를 교회 사냥꾼으로 묘사하는 한편, 최 목사가 청빙 과정에서 교회 부지를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고 교회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감독을 피하려고 교단을 탈퇴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안에교회 이방걸 장로는 "배상금이 지급되면 전액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故 최광명 선교사 천국환송 예배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선교사, 남편 최찬영 목사와 함께 평생 선교에 헌신하신 **최광명 선교사**께서
2017년 9월 16일 오전 7시 10분에 향년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소명에 순종하시면서 겸손, 섬김, 사랑, 그리고 헌신의 본이 되신 선교사님의
향기로운 일생을 회고하며 천국환송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장례일정

- 입 관 예 배 : 또감사선교교회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
- 일 시 : 9월 22일 2017년 (금) 오후 6시
- 집 례 :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교회 담임)

장례식 장소 : 6300 Forest Lawn Dr. Los Angeles, CA 90068 / 1800-204-3131

- 천국환송예배 : 9월 23일 2017년 오후 5시 (같은장소)
- 집 례 :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교회 담임)

- 하 관 예 배 : 9월 23일 2017년 오후 6시 (같은 장소)
- 집 례 :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교회 담임)

연락처

- 또감사선교교회 : 323.225.9111
-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미주지부 : 714.350.6957

유가족

남편 : 최찬영 선교사
장남 : Samuel
장녀 : Helen
차녀 : Miran
차남 : Daniel
자부 : Kathryn
사위 : John
사위 : Dan
자부 : Kanako
손자 : Christina, Andrew
손자 : Steven, Jeffrey
손자 : Mija, Derrick, Emily

*복장은 검은색과 감은색 넥타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후서 2:12-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1.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사도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로마제국이 폴리갑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엔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 군대가 출발하자 폴리갑은 기도하며 숨어있던 처지였습니다. 로마군은 폴리갑의 집으로 가서 그 두 아들을 잡아 고문하며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자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폴리갑이 전해 듣고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하나님께 자신이 향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하얀 베게를 베고 잠을 자는데 베게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그 불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로마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구하여 돌려보내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예수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죄값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이 사람아,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소중하다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너무 안타까워 이곳에 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나 이제 예수 같은 것 안 믿겠다고 한 마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왕에게 진언하여 너를 특사로 사면하게 하고 너를 고관대작으로 직위도 줄 수 있도록 해주겠네"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 사람아, 나는 그럴 수가 없네.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신 일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화염에 목이 막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깨달아진 많은 사람들이 그 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폴리갑이 살아서 믿게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함과 담대함,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전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에 어느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돈을 벌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답니다.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아내를 쥐잡듯 두들겨 팼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자기를 지옥 안가게 하려고 이토록 모든 것을 참아가며 자기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비위도 맞추며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걸리든가 비참하게 되어 죽을 거야. 두고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벌이한 돈도 가져다주지 않고 도박도 하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생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대로,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주고 심하게 대하면 심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 시간에 첫 날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하나님을 헛믿고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이 자기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최 집사가 하루는 부흥회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들어오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칼을 쥐고 잠이 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붙들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이 그동안 원수 같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토록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칼을 치우고 남편의 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감싸 안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잠이 깬 남편이 그간 남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잘 못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편이 지옥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의 일들을 서로 자신의 탓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3. 환란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

6.25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종탑위의 십자가를 부수고 강단위의 십자가도 떼어내고 성경책, 찬송가를 짓밟고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새끼줄로 모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부터 불러 세워놓고 총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두지 그래.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쏴 죽여버릴 거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을 다른 곳에 묶어놓고 다음으로 장로를 불러내어 똑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장로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또 강단 위에 걸려 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고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는 말에 목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겠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 당신들 손에 죽는 다해도 나와 예수님 관계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하던 또 다른 청년 한 명도 담대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민군들이 이 둘은 당장에 죽여야한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인민군 한 명이 "대장님, 이 두 놈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래 골짜기로 데려가서 무덤을 파게해서 그곳에서 두 놈을 쏴죽이고 오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죽을 자리로 끌려갑니다. 산등성이를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그 인민군이 "나도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당신들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이 길로 내려가면 임진강이 나오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서든 다시 만날 것이다"고 말하고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인민군들의 보급품을 나르다가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살려준 그 인민군도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훗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 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조수아 찬양사역자와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콘서트' 기자간담회

굿네이버스 다양한 사역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 전개해 나갈 것

나눔홍보대사 조수아 찬양사역자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콘서트' 15일부터 24일까지

찬양사역자 조수아와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콘서트가 15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애틀랜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15일(금)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굿네이버스 관계자들은 "이번 콘서트를 시작점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발한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에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다.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토종 NGO'인 굿네이버스는 현재 35개국에서 200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40만 명의 아동을 돕고 있다.

김경호 후원개발총괄대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인 조수아, 소리엘 장혁재 대사와 함께하는 나눔콘서트와 더불어,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찬양사역자인 최명자 사모, 이은수 목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미주 전역에서 굿네이버스의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와 굿네이버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각 지역 운영위원 창립을 내년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너의 마음 속에' 등 편안하면서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잘 알려진 찬양사역자 조수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이번 사랑나눔콘서트는 해외아동 1:1 결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결연된 아이들은 한달 35불로 최우선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며, 점차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눔홍보대사 조수아 씨

이날 막 도착해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수아 나눔홍보대사는 애틀랜타 지역 집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무엇인가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대회에 참여했던 딸이 엄마가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인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수아 홍보대사와 굿네이버스팀은 도착 당일 저녁 한마음장로교회(담임 김기형 목사) 금요기도회 집회를 시작으로 주일(17일) 반석장로교회(담임 박성만 목사)에서 11시 예배 특송과 1시 30분 찬양집회를, 이어 20일(수)에는 새생명교회(담임 조용수 목사)에서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에서 나눔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22일(금) 오후 8시, 벧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에서 특별 찬양집회를, 23일(토) 오전 5시 50분 쟌스크릭한인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특별새벽집회 및 오후 7시 에덴스장로교회(담임 김춘기 목사)에서 찬양집회로 은혜를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24일(주일) 오전 11시 주성령교회(담임 김영복 목사)에서 나눔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오후 2시 쟌스크릭교회에서 마지막 특별찬양집회를 갖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앤더슨 김 기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북서노회가 개최됐다.

재미고신 북서노회 제41회 정기노회

"개혁 신학과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할 것"

제 41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재미고신) 북서노회(노회장 정준영 목사)가 지난 11일 훼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호세아 3장 1-5절)'란 주제로 열린 이번 노회는 노회장 정준영 목사의 사회로 오는 11월에 있을 장로 고시에 대한 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번 노회는 본국 남서울노회(고신) 사절단이 방문해 양 노회간 자매결연을 다지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의 부흥과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민수 목사(캐나다 밴쿠버 웨스트민스터장로교회)는 예배 설교를 통해 "철저한 성경적 삶을 통하지 않고, 역사적 전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혁교회의 바른 예배와 모범적 예배가 형성될 수 없다"라며 "개혁교회와 고신이 추구해야 될 신앙관은 반드시 역사적 선상에서 출발해 철저한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 ~ 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1부예배(EM) 오전 9:30 /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6: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 Awana 오후 8:00(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 (2부) 1:30pm / 새벽예배 (월-토) 5:00am /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박연훈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교회학교, 왜 문을 닫나? 복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

박연훈 목사, '교회학교 배가부흥 세미나'서 지적

9월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 남서울비전교회(담임 최요한 목사) 2천여 석 규모의 예배당이 거의 꽉 찼다.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교사들이었다. 토요일 열리는 행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이례적이다.

키즈처치리바이벌 아동부부흥네트워크(대표 박연훈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또 하나의 학교에서 영혼 살리는 교회로!'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아동부 배가부흥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대표 어린이 부흥사이자 교사, 또 목회자인 박연훈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교회학교 부흥과 관련된 그의 40년 사역의 열매를 나눴다.

박 목사는 '3년 동안 새친구 등록 650여 명, 그 비밀 공개(학교 앞 전도)', '새친구 정착 컨트롤 타워', '학교 앞 전도, 거룩한 예배', '다시 교회학교의 대부흥을 구하는 합심기도'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 말고도, 교회학교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3명에서 12명 만들기', '아이들이 반응하는 찬양', '동탄교회 부흥 이야기', '아파트 전도 이야기' 등 매우 실제적인 주제로 강연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신은, 주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학교를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박연훈 목사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왜 쇠퇴하고 있나? 복음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라며 "아이들에게 재미만 주려한 나머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한 아이가 친구를 따라서든, 아니면 교사를 따라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의 문턱을 넘었을 때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에 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교회에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간식 등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방법이 잠시나마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며 "그 아이에게 진짜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다. 그것만이 그 아이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또 전도하지 않는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도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하기에 안 되는 것이다. 전도는, 하면 된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는 매일 학교 앞에서 전도하며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런 말처럼 "교회학교는 안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실제 부흥하고 있는 교회학교들이 있다. 부평 갈보리교회(담임 신재국 목사)는 27명에서 7개월 만에 121명으로, 수지 남서울비전교회(담임 최요한 목사)도 9개월 만에 새친구 120명 등록, 순천주성교회(담임 문영찬 목사)는 지난해 1년간 새친구 273명 등록, 광주 새희망교회(담임 허태호 목사)는 4개월 만에 253명 새친구 등록이라는 기적같은 부흥을 이뤘다.

박연훈 목사는 "지금까지 전국 교회학교의 70%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나마 남은 약 30%의 교회학교도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교회학교 아동부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대국민 교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은 약 30%의 교회학교가 더 건강해지고 문을 닫은 70%의 교회학교는 다시 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임하길 소원한다"고 했다.

한편, 키즈처치리바이벌 아동부부흥네트워크는 이번 배가부흥 세미나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지역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요청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국 7대 광역시(순서: 서울-부산-대구-울산-광주-세종시-인천-서울)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교회학교 배가부흥 세미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의 구조를 리뉴얼하는 새친구 정착 컨트롤 타워 구축하기와 전략이 있는 학교 앞 전도에 대해 박연훈 목사가, 9개월 만에 4배 부흥을 이룬 간증을 진길창 목사(부평갈보리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열정회복에 대해 문영찬 목사(순천주성교회)가 각각 강연한다.

최근 책 〈학교 앞 전도, 거룩한 예배〉를 출간하고 겨울 어린이 은혜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박연훈 목사는 "교회학교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인본주의의 방법을 모두 끊고 신본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北, 핵미사일 도발 즉각 중단하라"

한기총 15일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15일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국제사회의 제재나 경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은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뉴스가 될 수 없을 정도"라며 "국제사회가 다시금 초강력 제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만 달러 정도의 인도적 지원도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을 축소시키고, 무기화될 수 있는 것들은 차단하고 있다"며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사드 추가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앞으로는 미사일이 북한 상공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주변으로 강력한 미사일 격추 시스템을 가동시켜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발이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북한은 대화의 장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허리케인, 화재, 지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준비할 때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최근 미국 및 세계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산불,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산불, 허리케인이 차례로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다. 플로리다에서는 가장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 이번 주 멕시코에서 진도 8.1의 지진이 멕시코 남부 지역을 강타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두 가지 성경구절을 들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은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한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한다"며 "이것들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성경적 표시들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래함 목사는 "아무도 그날이나 시간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지 못한다"면서 "재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잭 필립스 씨 ⓒADF 제공

트럼프 행정부 동성혼 케이크 거부 기독교인 지지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것 선택할 수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는 동성애자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잭 필립스에 대한 법정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CNN 보도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제프 월(Jeff Wall) 법무차관은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음악가는 연주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시인은 강제적으로 글을 쓰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정 의견서는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비롯한 여러 다른 의견서가 접수 된 후 지난 목요일 접수됐다.

콜로라도 케이크샵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 측 사이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 논쟁은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다.

필립스는 지난 2012년 동성결혼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필립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 온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들은 지난 주 필립스를 대신해 준비서면을 접수했다.

로렌 엘삼(Lauren Ehrsam) 법무부 대변인은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도 "필립스는 부당하게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없이 그가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서에는 팩스턴을 포함해 알라바마, 애리조나, 알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타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 그리고 폴 르페이지 메인 주지사가 동참했다.

자유수호연맹도 지난 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필립스가 수십년간 자신의 사업을 기독교 신앙에 의존해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그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영감을 불어 넣지만 신앙의 교리와 일치하는 케이크만 만들 수 있다. 특정 맞춤 케이크를 디자인할지에 대한 그의 결정은 고객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케이크가 무엇을 표현하고 축하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일해온 필립스는 할로윈 케이크, 반미 케익, 술을 포함하는 케이크 등을 만드는 것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동성 커플을 대표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정 의견서 제출을 비난했다.

ACLU의 부법률 고문인 루이지 멜링(Louise Melling)은 "법무부가 성소수자(LGBT)와 많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 문서는 충격적이며 이 행정부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가 옹호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차별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ANC 온누리 교회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10월 1일
신청접수 e-mail:ancsfug@gmail.com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3.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sfug@gmail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자격사항 및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818.834.7000 / www.anconnuri.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가장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소중한 보화를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화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조지 무어는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던 사람은 마침내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겼다면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느라 문제 속에 담긴 해결책의 씨앗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때로는 문제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생각지도 않은 먼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머무는 곳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민자로서 늘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누구나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머무는 곳을 사랑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머무는 곳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머무는 곳을 떠난 후에야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아름다웠는지를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둘째,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 먼 곳에 선교를 떠나곤 합니다. 선교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선교를 다녀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교지는 가정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찌 우리 원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라고 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원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던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곁을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종말의식을 가질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큰 것만을 추구하다가 작은 것 속에 담긴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은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습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마 13:31-32). 보석은 작지만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함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만한 작은 변화가 거대한 폭풍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미소, 작은 시작, 작은 도전, 그리고 작은 행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성공을 가꾸십시오. 잠시 스쳐가는 작은 만남을 소중히 가꾸어 보십시오. 피터 마샬(Peter Marshall)은 "작은 실천이 원대한 계획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실천을 통해 작은 성공을 맛보도록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에 옮기십시오.

넷째, 마음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장 가까운 집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집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원천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눅 17:21).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2:3).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요 1:14).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충만해진 것입니다(골 2:10). 보배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8)

제 이 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프라할라드라는 교수와 하멜 교수는 네 마리의 원숭이를 한 방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 방 가운데엔 기둥이 하나 있었고, 그 기둥 위엔 바나나 한 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한 마리씩 기둥을 타고 올라가 바나나를 손에 쥐려 했지만, 한 마리가 기어올라갈 때, 지붕에서 찬물이 한 바가지가 쏟아졌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던 원숭이는 깜짝 놀라 손을 놓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원숭이가 같은 시도를 했을 때, 똑같이 찬물이 원숭이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네 마리의 원숭이가 하나씩 기둥을 타고 올라가 바나나를 손에 쥐려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다 찬물 세례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후 네 마리의 원숭이 중 하나를 방밖의 다른 원숭이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방에 들어온 원숭이가 이전에 해프닝을 모르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 했을 때, 나머지 세 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잡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가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았어도, 새 원숭이는 같은 방 세 마리의 원숭이들로 인해 기둥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리 원숭이가 모두 교체되었을 때에는 찬물을 뒤집어 쓴 원숭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원숭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는 원숭이를 계속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체험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할 때, 막고 저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원숭이들같이 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시간이 흐르며 "아, 나는 실패자다. 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남이나 외부의 요소를 탓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바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실패의 악순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과감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실험의 원숭이같이 미련하게 이유도 모르며 자신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포기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염려보다는 기도를

박 성 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가 차 앞에 뛰어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응시자가 "당연히 개를 치겠다"고 대답을 하자, 시험관은 다음에 다시 오라며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응시자가 반발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을 치란 말이요?" 시험관이 대답했습니다. "원 참 바보같으니라구, 그땐 브레이크를 밟아야지요!"

우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서 제3의 길이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때 생각지 않던 길도 열리고, 뜻밖의 해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에게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핵으로 말미암은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곳 미국에서는 과도한 이민 정책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의 폐지 발표로 많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휴스톤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어마(Irma)라는 역대 최강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향해 왔고, 이것 외에도 실직, 사업의 어려움, 질병, 가정의 위기 등으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를 향한 길을 여시고 진정한 해답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성경, 타락, 구원, 종말 등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믿음

美 기독교계 지도자들 '종교개혁 신앙고백문' 발표

미국에서 지난 12일 250명 이상의 저명한 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31일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확증하는 신학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고든콘웰신학대학교 그웬페어 W. 아담스 박사,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대학교 데이빗 W. 파오 박사, 리젠트신학대학교 킴벌리 E. 알렉산더 박사, 서미트교회 J. D. 그리어 목사,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 마크 툴레이 소장 등 250명의 인사들이 동참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순전한 개신교 신앙 선언문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범교회적 신앙고백

교회 배경과 신학 전통이 다양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천명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은 무한히 위대하고 선하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요, 빛과 생명의 유일한 참 원천이요, 자존하시며 영광스러운 빛과 주권적 사랑 가운데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삼위(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마 28:19, 고후 13:14).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구속하시는 과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데, 사랑과 거룩함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신 7:6)로 삼아 자기 영광을 찬양하도록 할 목적으로(엡 1:3~14)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고 조성하기로 자유롭게 작정하셨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각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무류하고 충분히 명료한 규칙이자 권위다(오직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시 119:105), 곧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들로 표명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말씀으로서, 지식과 거룩함이 성장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성경은 그것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명령하는 모든 바를 따라야 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내용을 신뢰해야 하며 그것이 밝히는 모든 진리를 추앙해야 한다(딤후 3:16).

인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하시되 특별히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창 1:26~27) 따라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래적 존엄성(생득권)과 피조물로서의 소명(책임)을 부여 받았다.

타락

창조계와 인간이 본래 지녔던 선은 죄, 곧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써 창조주와 창조 질서를 부정했던 자멸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롬 3:23). 아담과 하와는 입법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질서 대신 혼란(롬 8:20~21)을, 인정 대신 신적 정죄를,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 생명 대신 죽음을 초래했다(시 51:5, 롬 5:12~20).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요 3:17),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딤전 2:5)로(오직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 집의 종이요(롬 1:3, 15:8), 두 본성을 단일 인격에 지니신 분으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혼란되고 손상된 타락한 실존 속으로 들어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빛(진리)과 생명(구원)의 전달을 체현하셨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 대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과 타락과 범죄에 대하여 은혜로 예비하시되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과 속죄제를 통하여 잠정적이면서도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 육체라는 성전으로(히 10:11~12)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충분하고도 완전한 희생적 죽음(롬 6:10, 벧전 3:18)이라는 선물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셨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사 53:4~6, 고후 5:21, 골 2:14~15).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우리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다.

복음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를 부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롬 5:1).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으나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온갖 고통을 겪으셨으므로, 죄인들은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신뢰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오직 믿음).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죄의 삯을 받으셨으므로(롬 6:23),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의 권세와 형벌과 (궁극적으로) 관례에 대하여 죽는다. 그리스도가 새로워지고 회복된 창조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므로, 성령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다(엡 2:15).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 덕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입양되고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

성령은 삼위일체의 셋째 위격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인격적인 현존으로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들을 중생시키며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딛 3:5). 성령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며, 그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들이 지식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다(엡 4:13). 성령은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신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증언을 지도하시고 그들이 수행하는 제자의 직무에 권능을 부여하신다.

교회

단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단체요, 새 창조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를 주님과 머리로 하는 고금의 구속 받은 사람들의 무리 전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교회의 견고한 기초다(마 16:16~18, 고전 3:11). 지역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자 비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이 땅의 장소로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의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눅 22:19)에 순종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존재한다.

세례와 성찬

우리 중에 '성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는 세례와 성찬 이 두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결부되는데, 복음의 약속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된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신자들의 확신을 굳게 하고 신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세례와 성찬은 종교 개혁의 핵심적 통찰, 곧 하나님의 선물(오직 은혜) 및 두 의식으로 보증된 약속을 붙드는 믿음(오직 믿음)을 위한 실제적 초점이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과정("한 떡 … 한 몸" – 고전 10:16~17)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화목을 참되게 나타내는 만큼 복음의 유형적 표현이다. 세례와 성찬은 죄 용서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 및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기시키고 선포하고 입증함으로써 신자들을 세운다(고전 11:26, 골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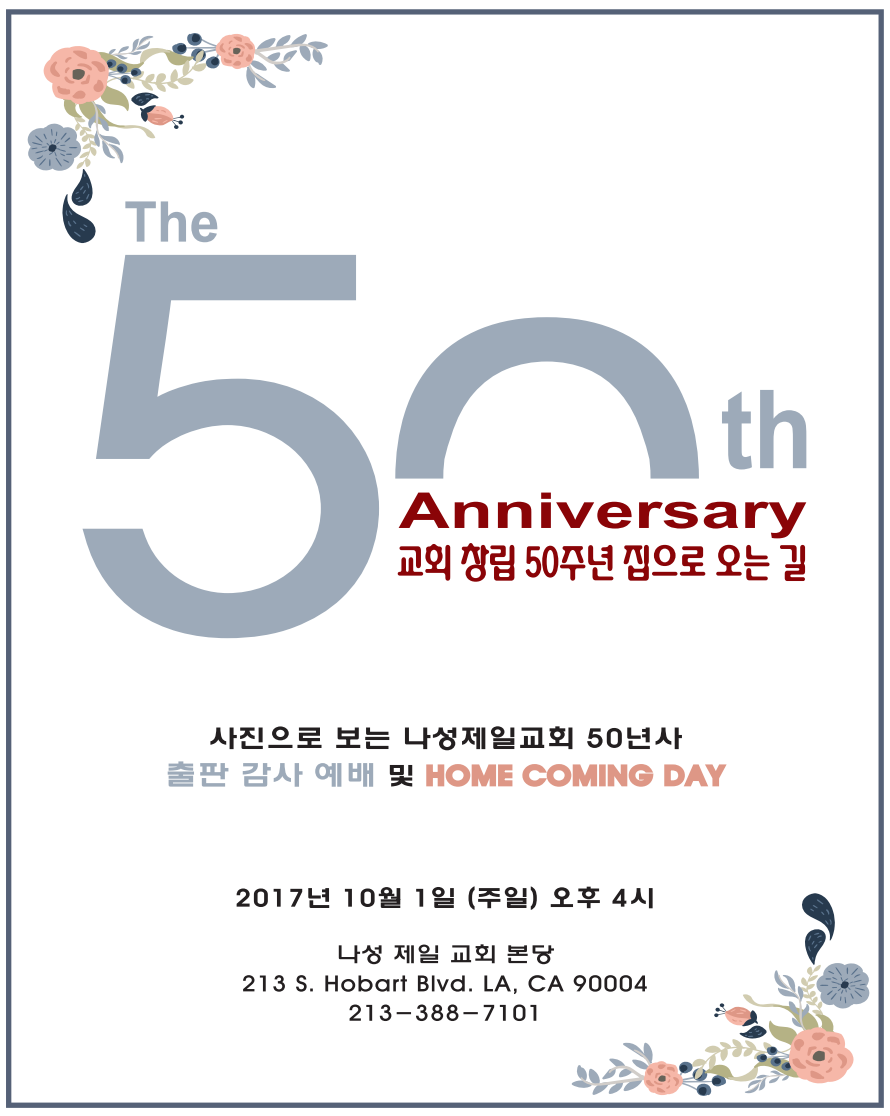
거룩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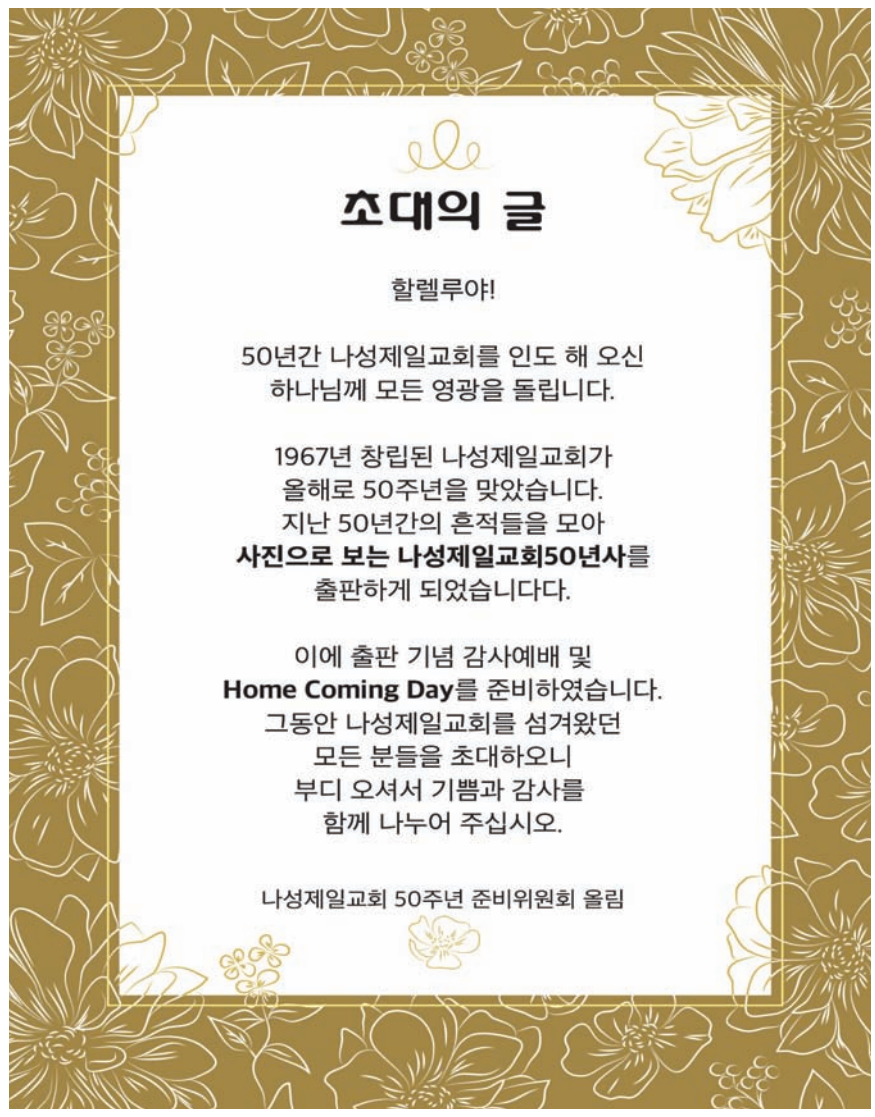
기도, 말씀의 사역, 다른 형태의 공동 예배뿐 아니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벧전 2:9, 10)로서 자신의 새로운 실재로 자라간다.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개인과 단체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탁월한 공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서 자기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행위와 긍휼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의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지혜롭게 증언한다.

종말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사망과 사탄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통하여 온 우주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고전 15:26).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신앙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분리된 영원한 운명에 처하게 하실 텐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신부로 예비하셔서(계 19:7~9), 평안 없는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영화로워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며(고전 15:32, 빌 3:21) 그들은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로 크게 기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유할 것이다(계 21:1~2).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딤후 2:12, 계 22:5) 그리스도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며(고전 13:12, 계 22:4) 경탄과 사랑과 찬양 속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Alex Kim

WESTERN MOTORS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구) Family자동차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500더 드립니다."
323.737.5900 213.713.9027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www.alexkimntrading.com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손만두
626-731-7864
각종 김치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팥찐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ea

주님과 동행하는 삶 3D
탁상달력 사전 주문 시작합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주문완료 해주신 교회한해서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착오없이 빠르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탁상달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다달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욥바에 있는 아브라함공원의 조각과 요나를 기억나게 하는 큰 물고기상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3)

'봄의 언덕 텔아비브'와 '요나의 욥바'

시저이아에서 2번 고속도로를 타고 샤론 평야지대의 오렌지 밭과 지중해를 바라보며 남쪽으로 30마일을 내려가면 '봄의 언덕'이라는 텔아비브에 도착한다. 텔(Tel)은 고고학 용어로 '유적의 언덕'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언덕을 뜻하는 텔과 봄을 뜻하는 아비브(Aviv)가 한 단어가 되어 '봄의 언덕'이 되었다. 그만큼 텔아비브는 겨울의 고통(디아스포라)을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텔아비브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쩰이 쓴 'Altneuland(Old New Land)'라는 책의 히브리어 번역서 책 제목이었다고 한다. 이 이름의 유래는 성경의 에스겔서 3:15이다. "이에 내가 텔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이 이름은 옛 유대인 땅에 대한 부흥(르네상스)의 의미와 어울린다고 해서 1910년도에 많은 이름들 중 선택됐다고 한다. 봄의 언덕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도시의 이름에서 물씬 풍겨난다. 현재 지중해의 동쪽 기슭에서 최고로 변화한 도시, 중동의 유럽이라는 텔아비브는 고층 빌딩과 야자수 가로수를 자랑하며 한껏 자태를 뽐내는 멋진 도시가 되어 있다.

벤구리온 공항

디아스포라의 꿈의 도시

2000년 만에 고토를 되찾겠다는 유대인들의 꿈은 신생도시 텔아비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도시는 원래 이 근처에 있는 야포(욥바, Jaffa)라는 고대 이래의 항구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1900년 초에 모래언덕이었던 곳에 세 가정의 유대인이 정착하며 시작됐다. 1909년에 유대인 66가구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자그마한 마을을 건설한 것이 텔아비브의 시작이다. 1910년까지 도로망과 상하수도, 유대인 학교, 66가구의 집 등을 지으며 '텔아비브'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각지에서 유대인 인구가 몰려들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텔아비브와 야포 일대의 유대인들에게 오스만 정부의 추방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오스만 제국의 패망으로 곧 철회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아랍인과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1921년 1차 야포 사태가 일어나자 유대 인구의 상당수가 텔아비브로 모여들면서, 2천여 명(1920년)의 마을이 단 5년만에 3만 4천 명(1925년)의 도시로 바뀌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밀려든 이민자 유대인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공회당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선언이 있었고 초대수상으로 선출된 벤구리온에 의해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1967년 6월 5일에 벌어진 육일전쟁으로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국제적 분쟁지역이며 국제적으로 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2번의 세계대전과 중동전쟁 등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불안한 와중에도 텔아비브만큼은 공격을 잘 받지 않았고, 덕분에 초고층 빌딩이 몰려들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위해 모이는 등 번성하는 곳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출입문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늘로 오는 길이 가장 편리하고 전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입문 텔아비브는 각국 대사관이 자리잡고 있고, 인근의 벤구리온(Ben Gurion) 국제공항은 1936년 리다 공항으로 처음 개항하여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로드 공항으로 불리다가 이후 이스라엘 초대 수상인 다비드 벤구리온의 이름을 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정치, 경제, 무역, 교육, 패션, 출판업 등의 중심이 되었다. 텔아비브는 도시 자체 인구수는 43만여 명이지만, 광역권은 그 10배에 가까운 378만여 명이 밀집해 있다. 텔아비브와 인근 위성도시를 합해 이스라엘 전체 인구 670만 명 중(유대인 인구) 약 37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특성상 이스라엘 국적 기업 본사, 다국적 기업들의 지사들은 대부분 텔아비브에 자리잡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도로 인정되지 않은 예루살렘에 기업 본사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연하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이스라엘 관광객 및 성지순례객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제일 1순위로 들르는 곳이다. 예루살렘이 고대 도시로 전통을 중시한다면 텔아비브는 현대도시로 세속화된 자유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 갈까? 요나의 망설임

텔아비브 백사장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라는 야포가 나온다. 노아의 아들 야벳이 건설했다고 알려진 야포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 요나가 바로 이 항구에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다시스로 향하기도 했다. 지금도 욥바 항에는 작은 유람선들과 고기잡이 배들이 있다. 옛 욥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큰 물고기가 물을 내뿜는 것이 꽤나 인상적이다.

구약 성경에서 욥바가 언급된 곳을 보면, 솔로몬이 홍해를 통해 '오빌의 금'이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금을 수운해 왔고, 욥바 항구를 통해서는 레바논의 극상품 백향목을 뗏목을 이용해 들여와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였다(대하 2:16, 스 3:7). 그보다 앞서서는 여호수아 19장 4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나눌 때 단 자손의 기업에 욥바가 나온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가이사랴에 살았던 백부장 고넬료가 종들을 욥바 바닷가의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어 거기 머물던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청하여 와서 복음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행 10장).

지금도 시몬의 자손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몬의 집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집은 방문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이 집 안으로 들어가 깊이 30m 정도의 우물을 보고 2층 지붕으로 올라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도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밖에서 문패만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시작될 것이 환상으로 보여진 곳이기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장소 중의 하나다. 시몬의 집을 방문한 후에는 해석으로 지어진 돌담길을 따라 항구로 내려가 보자. 지중해 물은 요나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하다. 요나처럼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자신 없어 하지도 말자. 주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중해 푸른 물을 바라보면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달려와서 요나를 토해 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계속〉

채플과 엠버밍시설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장의사

리스장의사 장례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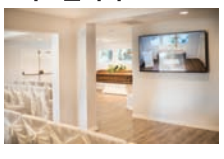
장례는 현실입니다.
이제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으로 부담을 덜어 내세요.
장례적금은 장례보험과 다르게 **양도양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도 **강제해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 또는 **디파짓**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약속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장례적금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든지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패키지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A	$2,270 SAVE ($10,070	$7,800)
B	$2,820 SAVE ($8,820	$6,000)
C	$2,170 SAVE ($6,970	$4,800)
D	$1,655 SAVE ($4,655	$3,000)

화장패키지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A	$2,070 SAVE ($8,070	$6,000)
B	$2,770 SAVE ($7,570	$4,800)
C	$3,070 SAVE ($6,670	$3,600)
D	$1,365 SAVE ($2,565	$1,200)

*최저 23%에서 최고 $63%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Since 1966

"이제 부담없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을 통해서 $3,000이나 절약하고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마음에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스장의사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Lee's Mortuary FD1164
리스장의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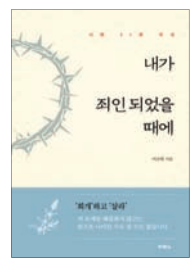
통과
정성 | 좋은씨앗 | 262쪽

'복음에 빚진 내시경 의사 이야기'. 외국인 선교활동이 금지된 히말라야 고원한 도시에 파송된 의료선교사의 10년을 기록했다. 저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현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들을 가르치면서, 도시 빈민들과 소수민족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위부터 직장까지, 8m의 신묘막측한 소화기관 활동을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분류해 창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눈을 떠요, 아프리카
김동해 | 홍성사 | 264쪽

평범한 안과의사였던 저자는 9·11 테러를 보면서 고민하다, 그들의 증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겠다고 결심한 후 안과 수술이라는 달란트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의료선교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를 설립해 38개국 14만 명을 진료하고 2만여 백내장 환자들의 시력을 찾아준 이야기, 아프리카 비전루트 등을 담백하게 담았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규현 | 두란노 | 196쪽



시편 51편으로 두 달 이상 설교한 내용을 엮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이상 죄 가운데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비로소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드리는 '참회의 시'다. 시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면모와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용서가 없다면 관계 회복도 없기 때문에, 저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크리스천, 자유를 묻다
새뮤얼 볼턴 | 생명의말씀사 | 144쪽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 은혜와 율법의 모순, 순종이 의무인가 선택인가 등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율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시대를 거듭해 가장 사랑받은 대답을 들어본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철저히 성경의 관점을 토대로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잘 설명해 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처음은 달지만 뒤는 높고 깊음이 있는 성경 조망

저자 김창영 박사와 김홍만 박사는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고 규정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구원의 경륜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관통한다. 두 저자는 청교도 신앙과 신학을 삶의 영적 지표로 삼고,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연속적 신학으로 보고 신봉한다.

두 저자는 '구속사'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 구속사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구간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두 저자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다. 그런 학자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간략한 도서를 한국교회에 소개했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소책자처럼 아담한 사이즈에 좀 놀랐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는 서문을 볼 때, "히든 카드를 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1장에 들어갔다.

〈단숨에 읽는 구속사〉는 성경 전체 구속사를 시대별로 다섯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창조 시대-이스라엘 민족 시대-선지자 시대-그리스도 예수 시대-교회 시대이다. 두 저자의 견해는 죄로 인한 홍수 심판, 바벨의 언어 심판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연결이 매우 독특하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 시대로 종결시키고, 왕정 시대가 아닌 선지자 시대로 제안한다.

단숨에 읽는 구속사
김창영, 김홍만
생명의말씀사 | 168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시할 때,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등극'이라는 저자들의 용어로 교회 시대와 연결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선교적 교회를 제안하며, 독자를 격려한다. 이는 저자들이 성경을 보는 상당히 독특한 견해이고, 독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청량제와 같다.

〈단숨에 읽는 구속사〉는 삼위일체 창조로 시작해 삼위일체 구원으로 마친다. 이렇듯 성경과 삼위일체가 어우러지며 풍성하게 기술된 책은 없을 것이다.

구원은 성경을 떠나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저자들이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는 문장들이지만, 한땀 한땀 자기 신학의 정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작은 책자이고 적은 분량이고 단순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성경 내용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움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단숨에 읽는 구속사〉를 읽는 독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핵심 단어와 믿음의 사람들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의 세계가 확장될 것이다. 매우 학문적이고 어려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저술들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익한 독서가 될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와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멧프리,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지원 시스템(ADAS)탑재
▪ 포멧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멧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싸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럽차(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은 추가요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께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진지한 열정과 질문 품은 조직신학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사변적 신학을 넘어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배운 것 중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성경, 설교'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으로, '창조론'에 의문이나 의심을 품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배웠다. 이것은 신학대학원을 가서도 여전히 불문율처럼 지켜졌다.

그렇게 믿음으로 목사안수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한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며 부목사 시절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절대 성경, 하나님, 기존 교리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1
판넨베르크 | 신준호, 안희철 역
새물결플러스 | 738쪽

의문을 가지다

맹목적 믿음이 좋은 것은 굳이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가 믿고 있는 신념만 고수하면 된다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면서 믿는 자들만의 세상이 아닌, 세상의 온갖 고통과 소외와 함께 어떻게 손도 써 볼 수 없고, 기존의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해도, 위로도, 믿음도 줄 수 없는 진짜 현장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신학적 지식과 성경 해석들과 목회적 방식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개척 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손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과연 성경에 대해,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관에 대해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 시험에 든 자, 불신자'가 되는 것인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본서와 같은 책들이 지금에 와서라도 번역이 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기존 개신교 조직신학 책들과는 달리, 우리의 정통성을 강조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우월적 관점으로 반복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모든 계급장을 떼어버린, 그래서 다른 종교나 신학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개신교회 신학을 바라보고 정리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회의 신학적 관점들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과 질문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더욱 진지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자연신학

사실 한국 저자들이 쏟아내는 신앙서적과 신학서적들 다수를 보면, 매우 이성적이다. 물론 일부 신사도주의자들이 쓰는 소위 은사와 능력, 체험주의자들의 글들도 다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정통이라 불려지는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은 본서의 2장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2장은 '하나님의 개념과 그 진리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한국교회 신학적 태도와 겹쳐져 있다. 즉, '자연신학'이다. 이성적 토대 위에서만 신학이 다뤄지는 현상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린 신학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사변(이론)적 신학 일변도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실성

저자 판넨베르크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다(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판넨베르크 신학을 '역사성'이라고 부른다). 즉 그는 종교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성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즉, 그가 2장 '자연신학'과 4장 '계시'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사변성'에 대한 고발과 경고이다.

현실성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사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넨베르크의 신념인 것 같다(이로 인해 그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저자는 3장에서 종교 개념과 신학적 기능과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을 증명하기 위해 5장에서 '삼위일체'를 다룬다. 마지막 6장에서는 삼위일체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의 개념들을 통해, 하나님의 현실성과 신학적 현실성을 설명해 간다.

변증적 조직신학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계몽이 일어났고, 점점 그 계몽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에도 부분적으론 일리가 있으며, 현재의 신앙적 지식에 보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버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의 신앙지식과 성경 지식에 질문과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국교회가 쇠락할지, 아니면 다시 회복과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지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양육하고 길러야 할 성도들은 말 잘 듣는 착한 성도가 아니다. 대신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쏟아내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진지한 열정과 열심을 품고,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목회자들과 성경과 신학을 향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현실성을 믿는 자들을 양육해 내야 한다(여기서 현실성이란 수많은 도전과 질문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변증해 내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의 현실성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거나 외면하고 있었던 의문과 질문을 갖게 해 주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근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자들은 어색하고(본서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종교학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인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인식 지평을 분명히 확장시켜 줄 것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존 프레임의 사상 집약한 강의 저술서

조직신학 개론

조직신학 개론
존 M. 프레임 | 김용준
P&R | 498쪽

존 프레임(John M. Frame, 1939-)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유력한 조직신학 교수였고, 지금은 리폼드신학교에서 노교수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프레임은 현대신학을 변호한 대표 연구자이다. 지금은 노학자가 되었고, 개혁주의 신학사(P&R)를 중심으로 한국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 프레임의 저술을 보는 것은 최근 현대신학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중요한 좌표이다.

〈조직신학 개론〉은 김용준 교수(현재 광신대학교)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연구자이며, 차분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이다. 그러한 연구자가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된 〈조직신학 개론〉은 좋은 저자와 좋은 번역자가 만난 매우 좋은 작품이다.

프레임의 사상은 매우 난해하다. 그런데 번역자는 번역할 때 경어체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저자가 강의 녹취를 구술해서 펴낸 저술의 특징을 살리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경어체는 난해한 신학 지식을 완화시킨 장점이 있다. 경어체로 제시된 신학 저술이 마치 매우 고난도의 설교 문장 강단에서 구술을 해도 될 정도로 부드럽게 번역되었다.

〈조직신학 개론〉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현대신학 사조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프레임의 저술을 잘 익히면 현대 신학 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변호할(Polemics) 수 있는 신학 내용을 익힐 수 있다.

〈조직신학 개론〉은 '하나님의 주권신학 시리즈(개혁주의신학사에서 신론, 성경론, 윤리학이 번역됐고, 하나님의 지식론은 번역 안 됨)'를 요약한 것이다. 프레임은 서문에서 1-3장과 10장 일부분에서 신론을 요약했고, 4-5장은 성경론, 5장은 신지식론, 24장은 기독교 윤리에 대해 요약 소개했다.

이 외에 부분은 신학에 대한 제시(6장),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의 서정(13-17장), 교회에 대해(18-21장), 종말에 대해(22-23장) 등으로 구성했다. 구원의 서정 안에 현재 민감한 '방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프레임은 조직신학 체계 안에 윤리학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조직신학과 윤리를 한 묶음으로 구성시켰다.

〈조직신학 개론〉은 저자가 자기 저술을 1부와 2부(아마도 2학기) 25주제로 축약해서 강의를 진행한 녹취이다. 그래서 〈조직신학 개론〉은 프레임의 '하나님의 주권신학 시리즈'를 읽기 위한 예비 독서로 매우 유용하다.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2103, 김진운 역, 부흥과개혁사, 2017년)'과 이 책 〈조직신학 개론〉, 'Salvation Belong to the Lord: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는 함께 보아야 할 저술이다. 먼저 〈조직신학 개론〉을 읽고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면 프레임의 사상 체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존 프레임은 신학 연구자,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신학을 이해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동시대 인물이다. 존 프레임 전체 사상의 대략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 도서가 〈조직신학 개론〉이다. 이 저술을 좋은 연구자가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했다. 강단 설교로도, 신학 공부 교재로도 유익한 저술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JESUS HEALING MINISTRY

제 24차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영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간증사례

유ㅇㅇ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캘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겉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캘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고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캘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ㅇㅇ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잣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캘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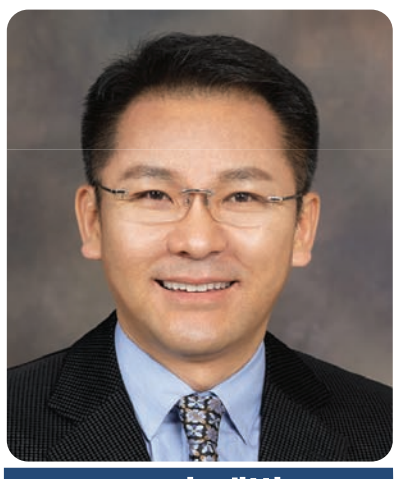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겉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제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캘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캘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캘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캘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챤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캘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GAPCK)
- 치유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 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3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참가자분들께 차편 제공해드립니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0월 2일 (월, 4pm) ~ 10월 5일 (목, 4pm)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 참가비 : 30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잣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 (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JESUS HEALING MINISTRY |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